



朴昌根

〈本會고문·(社)환경교육회 會長〉

‘도움이 된다면...’ —故 洪淳佑박사님을 추모하며—

고인을 처음 만나본 것은 15년 전인 1973년 겨울이었다.

약속 장소인 충무로의 어느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금 방금 도착하셨는지 홀을 둘러보시는 고인과 마주쳤다.

“홍순우 박사님이시죠? 아까, 권숙표 박사님의 소개로 전화드렸던 박 바오로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박 바오로라고 하셨던가? 그럼 천주교신자 이신가? 술은 하시지?”

당시, 나는 월간 다리지 사건(발행인으로 쓴 권두언이 트집 잡힘)으로 감호의 굴레에서 벗어

나기 전이라 천주교 영세명을 쓰고 있었다. 그런 자초지종을 아실리 없는 고인은 초면에 영세명만을 밝히는 내 무례를 개의치 않으셨다.

“권선생님한테 박선생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레 내가 무엇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앞의 술잔에, 술을 따르시면서 무슨 부탁이건, 다 들어줄테니 어서 말해보라는 그런 편안함을 던져 주셨다.

그래서 나는 당시 내가 추진하고 있던 환경보호 민간단체(「한국환경보호협의회」의 전신인 「한국환경보호연구회」)의 창설을 설명드리고,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나는 대학에서 미생물을 강의하는 교수일 뿐인데...”

“생태학이라는 자연보존의 측면에서 박사님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방금, 생태학이라고 하셨나? Ecology말이에요...”

사실, 당시로서는 「생태학」이란 말은 극히 첨단 용어였다. 그래서 고인을 꼭 모실 작정으로 나는 그걸, 미리 준비해 갔었던 것이다.

고인은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담까지 불러 앉혀놓고, 「생태학」이란 학문의 한 영역이기 보다는 현대인이 갖춰야할 하나의 지식이어야 한다고, 생태학 강의를 베푸셨다.

“환경보호를 하시겠다는 박선생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참여하죠”

그렇게 하여, 나는 내 환경보호의 일에 고인을 모셨다. 그리고 그후 오늘까지 고인은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언제나 내편에 서 주셨다.



고인은 미생물학이라는 극히 작은 세계의 학문을 하시지만,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폭은 우주와 같이 넓고, 크셨다.

그래서 자연보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두루 그 폭넓은 인간미를 보여주셨다.

말하자면, 자연보호의 환경 개척자이시자 환경보호의 자연 담당자이셨다.

(사실, 자연보호나 환경보호가 하나의 같은 맥임에도 행정의 어쩔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늘 답답해 하셨다.)

고인은 그 폭넓은 인간미로 하여, 어떤 회의나, 세미나에서도 그 분위기를 살리는 명좌장이셨다.

1981년 내무부가 주최하는 제3회 자연보호 세미나에서였다.

부산 해운대의 관광 호텔에서 낙동강 하구언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토론자로 참석한 나는 앞서 여러 토론자들이 생태학상의 중요성 때문에 낙동강 하구언 공사를 반대해, 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약간 시각을 달리하여, 빅토리아 폭포의 예(폭포에 발전소를 세우려다가 반대에 부딪쳐 중지되었다. 그후 관광지로 알려져,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 수익금은 발전으로 얻으려 했던 이익의 30배가 넘었다)를 들고,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낙동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후로아의 발언에서 메스컴에 잘 알려진 W교수가 내 발언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는등의 말로 나를 깔아뭉개려는 투의 발언을 했다.

건전한 학술토론이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려는 인신공격조라, 내가 당황해하고 있으니, 마침 세미나의 좌장이셨던 고인은 좌장의 권한으로 내게 다시 발언권을 주셨다.

그래서, W교수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권위주의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W교수는 얼굴을 붉히면서 재차 나를 공격하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사태의 흐름을 판단한 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선언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세미나는 끝났습니다.”

고인은 내게 웃으면서 나죽이 말했다.

“잘했어요... 저 양반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고 있어요!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언제든지 막아줄 테니까...”

고인이 아니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려다.

1981년 환경청산하의 법인단체를 구성하면서 나는 또다시 고인의 이사 참여를 부탁드렸다.

그때도 고인은 “도움이된다면...”이라는 한마디로, 이사 취임에 필요한 여러 복잡한 서류를 두말 없이 갖춰주셨다.

그리고 환경청으로부터 「사단법인 환경교육회」라는 너무 순수한 학술단체명을 정해갖고 나오자 모두들 그런 맑은 이름으로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려느냐?고 우려했었을 때도, 고인은 내 편이 되어 두둔해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교육단체 같이 깨끗하고 Simple 하지 않아요?”

환경교육이라는 명제는 우리 권속표박사님이 제안하신 것이고, 그걸 박선생이 Academic하게 정리하셨으니, 멋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회의는 무사(?) 통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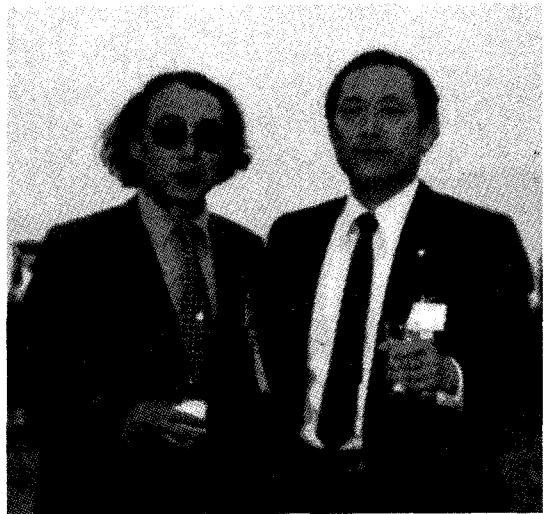
사실, 그때 여러 이사들은 좀 거창하고 그럴듯한 명칭을 정해 갖고 나오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국가”어찌고 “국민”저찌고 하는, 명칭만 들어도 찬조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을 기대했었다.

그걸 고인이 해석을 붙여, 순수한 일에는 순수한 명칭이 제격이라고 우겨준 것이다.

고인은 항상 폭넓은 미소와 호탕한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신다.

그래서 고인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고인의 품모에서, 대범한 정치가나 성공한 실업인의 상을 읽는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는 것을 알게되고, 특히 전공이 세상에서 작디 작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모두 놀란다.



◇ 1981년 내무부 주최의 「자연보호 세미나」에서 해운대 앞바다를 배경으로 고인과 필자

그렇게 호탕한 분이 어떻게 그 작은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냐?고 의아해 한다.

그것이 고인의 인품이고, 그것이 고인이 아니면 풍기지 못하는 대인의 자세다.

그런 고인이,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뵈 적이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단법인 환경교육회」가 명칭 덕을 보는지, 돈있는 독지가가 붙지 않아 고전(?)하고 있었을 때였다.

마침 강영선박사님께서 강릉대학(장)을 정년 퇴임하셨기에, 모셔서 교육회를 활성화 시킬 요량으로 고인과 의논했다.

그때, 고인은 그 특유의 웃음도 거두시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 얘기를 들으시더니, 고인답지(?) 않게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좋아요, 교육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합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척 생각해보시는 눈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강박사님은 고인의 친 은사로 내 제안에 두가지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즉, 하나는 돈 없는 단체에 강박사님을 모셔다가 고생시켜드릴 것이 걱정이셨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강박사님을 모셔다가 단체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걱정이셨던 것이다.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Yes, No를 분명히 하시는 고인이 그날따라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이다.

하여간, 나는 고인과 함께 강박사님을 추대하고, 강박사님은 제자들중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 보시도록 고인에게 부탁하시고 ...

그렇게 고인은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환경보호의 일에 앞장 서 주셨다.

“도움이된다면... 내가 알아보리다...”



내가 고인을 마지막 만나본 것은 지난해 여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한 복지사회를 위한 심포지엄의 환경분과 토론에서였다.

환경청의 이두호차장님, 김형철국장 그리고 권숙표박사님, 정문식박사님, 정용박사, 고인 그리고 나 이렇게 일곱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의 한 방에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의 환경문제를 3일간 토의했다.

이때도 고인이 좌장을 맡으셨다. 그리고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처지라 우리 분과의 토론은 집안 일을 사이 좋게 의논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칫 빠지기 쉬운, 만네리즘적 분위기였으나, 고인의 사려깊은 좌장 솜씨가 공사를 분명히 구분해 충분한 토론과 결론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

우리의 토론이 끝나고, 각 분과의 종합토론이

대강당에서 주최자에 의해 보고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자, 다른 분들은 자리를 떴지만 고인은 남아야겠다며, 다른 급한일이 없으면 함께 있다고 말씀해 나도 끝까지 종합보고에 참여했다.

그렇게 서너시간, 우리는 종합보고의 자리 뒤편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고인은 약속시간에 쫓겨, 자주 시계를 보시고 또 틈틈히 나가서 전화를 걸고 들어 오시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환경분과 토론에 대한 로비의 질문에 대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책임감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완전히 심포지엄이 끝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박선생 술한잔 할까요?”

“약속있으시지 않으세요?”

“아까 너무 늦어서 취소했어요”

“그럼, 주최자가 만찬을 준비한 Lotte Hotel로 가시겠어요?”

“우리끼리 요근방에서 간단하게 한잔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뒤 무교동의 어느 조용한 일식집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고인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회 활성화 방안, 최근 내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보호 운동의 방향 등을 의논드렸다.

그리고 고인은 아까 우리의 토론에서 내가 생태학적인 접근방안에 대한 제시가 참 좋았으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태학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생태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걱정하시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일부에서 나의 직설적이라고 할까? 그런 Dynamic한 제의의 글에 대해 좀 비판적인 눈초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고인은 그것이 박선생의 강점인데, 남의 이야기에 귀기우릴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시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 1987년 6월 5일 제1회 환경보전대상을 수상한 필자를 축하해 주시던 고인

학교에 갇혀있는 교수나, 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소리를 박선생이 해야 한다고 두둔해 주셨다.

그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환경보호 문제가 주된 이야기였지만, 그날 따라 나는 이상하게도 내 신변의 여러 잡다한 애로 사항이랄까, 그런 답답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을 의논드렸고, 고인은 나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명쾌한 해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선생, 정말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특히 돈벌이 때문에... 직업 때문에 환경을 보호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소인배이지만, 정말 환경보호 때문에 사는 사람은 대인이예요.

대인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내 신념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소인배들의 잡소리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소신껏 일하세요. 박선생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환경보호에 박선생 만큼 헌신한 사람 없어요!

언제든지 박선생의 일에 도움이된다면 내가 나서드릴 테니까...”

■
 그것이 고인과의 마지막 만남의 날이었다. 그리고 2~3개월 후 나는 순회강연차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고인에게 연하장을 띄웠는데 ...

금년, 1월 중순 귀국하여 그동안 밀린 일때문에 동분서주하느라 문안 전화도 못드렸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아침 조간신문에서 고인의 부음을 접한 것이다. 이때의 당혹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이러시면 안되는데...”

그것이 내 첫마디였다.

“아직, 멀었는데... 아직, 떠나실 때가 아니신데... 아직 가서서는 안되는데...”

가슴 한구석 무너져내림을 억제치 못하면서 나는 원고지를 찾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생태계의 調和와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신 溫和, 人和의 뜻을...」 (산업환경신문 1면 추모사)

글을 써나가면서 자꾸 눈물이 베어 몇번이나 돛보기를 닦고 닦았다.

환경사에 길이 남으실 고인의 그 큰 발자취를 내 어찌 누추한 마음으로 헤아리랴... ■